
 <b>인천광역시</b>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
		배포일자	2023년 9월 27일(수) 총 2매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 당 자	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• 삼산농산물검사소장 • 담당자	주 광 식 ☎440-8511 한 영 선 ☎440-5601 송 성 민 ☎440-8512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추석 맞아 구입한 농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

-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, 제수·선물용 농수산물 대상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-  
 - 총 85건 수거·검사, 농약 허용 기준 초과한 채소는 전량 폐기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 보건환경연구원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제수·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수산물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사는 삼산·남촌농산물도매시장, 재래시장, 대형할인점,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경로의 제수·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으며, 검사 품목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집중되는 다소비 농수산물로 선정했다.

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▲채소류 66건 ▲버섯류 10건 ▲과일류 9건 총 85건을 수거한 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, 채소류 1건에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즉시 전량을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해 유통을 차단했다.

수산물은 조기, 굴비, 동태 등 15건을 수거해 중금속을 검사했으며,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.

또한, 최근 중국산 깎 양파에서 기준을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인천지역에 유통되는 중국산 및 국내산 양파 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,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매일 실시해 검사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및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앞으로도 농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#### <붙임> 관련 사진

